

2022년 제12호 (통권31호)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ISSUE BRIEF

2022.12

중소기업의 ESG 공시와 EU 택소노미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중소기업의 ESG 공시와 EU 택소노미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I. 개요 .....	1
II. 연구 목적 .....	4
III. 방법론 .....	6
IV. 사례연구 .....	8
V. 연구 결과 .....	16
VI. 결론 및 시사점 .....	21

## 요약

-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하며, 녹색 분류체계인 유럽연합 택소노미 규정(The EU Taxonomy Regulation) 도입을 통해 ESG 데이터 공시 관련 내용을 정의함
  -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음
  - 따라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공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 2021년 1월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 주도로 ESG 데이터 공시 의무화를 선언했으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예산과 인건비 부담 등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 ESG 데이터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시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중소기업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ESG 데이터 공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접근에 부담이 없어야 함
  - ESG 데이터 공시는 단순한 회계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봐야함
  - 표준화는 시스템에 투입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함
  - 데이터 플랫폼 간 결과의 비교를 위해 정책 입안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일련의 지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택소노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ESG 데이터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명확한 기준 확립과 민·관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데이터 공시를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 가능함
  -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내 기업의 ESG 공시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K-ESG 얼라이언스를 설립하여 대기업에 집중된 ESG 데이터 공시에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 ESG 공시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하고 K-ESG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 활용과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본적인 ESG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발표함

- ▶ 2021년 1월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ESG 데이터 공시 의무화를 선언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임<sup>1)</sup>
  - 금융위원회는 ESG 데이터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힘
    - 2019년 당시 2021년을 목표로 전체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기업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
  - 금융위원회는 ESG 데이터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임
  -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하기 위해 3단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 1단계(~2025년) :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함
    - 2단계(2025~2030년) :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를 의무화함
    - 3단계(2030년~) :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를 의무화함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예산과 인건비 부담 등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 ESG 데이터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2)</sup>
    - 경기도에서는 산하기관과 더불어 중소기업 ESG 경영(공시 포함)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ESG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으며, 전문 프로그램 역시 부족해 중소기업에서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이슈 사항이 발생함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과 ESG 이해 교육 및 안내 자료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함
- ▶ ESG 데이터 공시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도 한국 중소기업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선과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 노동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유럽연합 택소노미 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함

(\*) Margot Möslinger, Alessandro Fazio, Olivier Eulaerts, "Data Platform support to SMEs for ESG reporting and EU taxonomy implementation", Joint Research Centre, 2022

1)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01.14  
 2) 경기일보, "녹색경영 열풍 거센데... 힘 못쓰는 中企", 2022.10.10.

-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하며, 유럽연합 택소노미 규정(The EU Taxonomy Regulation)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건을 정의함
  - 유럽연합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에서 주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준을 위해 제정한 녹색 분류체계임
  -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유럽연합 택소노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임
  - 유럽연합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재무 정보를 포함해 비재무적 정보, 즉 환경·사회·거버넌스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금융기관, 규제 기관, 투자자같은 경제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럽연합 택소노미를 활용할 예정임
-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음
  - 따라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공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 ▶ 본 보고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시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이용 가능한 플랫폼과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 출처와 방식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함
  - 사전평가는 기존 핀테크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를 이해하고 중소기업이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걸림돌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임
  - 현재 많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유럽연합 택소노미 체계와 일치하는 플랫폼은 많지 않음
    - 이러한 플랫폼은 금융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개별 기업에 초점을 맞춤
    - 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출 때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데이터의 완전성이 높아야 하며, 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데이터와 같이 누락된 데이터를 근사화(Approximation)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기업 중심 플랫폼의 경우 개별 기업의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ESG 데이터를 공시할 의무가 있는 상장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제공업체와 인터뷰를 수행했으며, 해당 인터뷰는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택소노미 규정에 맞춰 데이터를 공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진행됨
    - 인터뷰 및 심층 연구를 통한 사례 연구 결과, 중소기업의 주요 걸림돌은 표준화의 결여, 다양한 플랫폼 제공자가 적용하는 프레임워크 간의 불일치, 중소기업의 부조화 지표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높은 비용 부담으로 밝혀짐

- 인터뷰에서는 또한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택소노미 규정에 맞춰 ESG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비용 전환이나 공시 및 감사 수수료 절감 등 여러 해결책이 언급되었음
  - 번거로운 공시 의무에서 중소기업의 가치 창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ESG 정보 공시의 가치를 알리고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는 중소기업이 금융 플랫폼에 접근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목표나 경쟁 기업을 벤치마킹하며, 투자자와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또한 기업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공시를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증감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야 함
- 이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입안자와 핀테크 데이터 플랫폼 제공자에게 여러 권고 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타당성 평가와 함께 후속 조치가 필요함

**| 표 1 | 주요 권고 사항 정리표**

권고 사항	주요 내용
중소기업을 위한 공시 접근성 촉진 (Facilitating access to reporting for S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공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직원 수에 따라 중소기업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투자자에게 부담액을 전가하는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비용 절감 방법의 예시로 활용할 수 있음</li> <li>• 아울러, 공시와 감사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li> </ul>
가치 창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e value cre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는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접근,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 향상, 경쟁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음</li> </ul>
데이터 품질 보장 (Ensure data q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의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공시 표준을 도입하는 것임</li> <li>• 그린워싱(green washing)<sup>3)</sup>을 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 이를 위해 인증된 외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알고리즘 점검을 고려할 수 있음</li> </ul>
목표 지향성 확인 (Ensure goal ori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모든 방안은 공시 목적으로만 수행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포함된 모든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2050년까지 지속가능성과 기후 중립성으로의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해야 함. 따라서, 기업의 운영 방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공시와 기준만을 도입해야 함</li> </ul>

3)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킴

PART II

## 연구 목적

-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면 어떠한 이점과 단점이 있을지 분석하는 것임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탄소노미의 맥락에서 ESG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잠재적 장벽과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에 걸쳐 수행된 예비평가로 구성되었으며, 유럽연합 및 영국의 데이터 플랫폼에 중점을 둠
- ▶ 유럽연합 경제와 공급망 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특정 요구와 제약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유럽 기업의 99%는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유럽연합 탄소노미 규정에 따른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노미 정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중소기업의 공급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데이터 공시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데이터가 중요함
    - 특히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은 기업계의 총 배출량의 평균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역시 데이터를 공시해야 함
- ▶ 해당 보고서의 또 다른 목적은 유럽연합 탄소노미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ESG 데이터 공시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의 기존 환경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제공하기 위함임
  - 본 보고서는 시장에서 얼마나 유럽 탄소노미에 따른 공시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솔루션 개발에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솔루션이 얼마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함

**Q1.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주체가 수집하며, 방법과 이유는 무엇인가?**

A1. 중소기업이 자발적 택소노미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 절차를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적은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가 이미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다음 단계에서는 어느 주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집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Q2.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공시를 하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A2. 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택소노미 체계 조정을 공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고, 공시를 통해 어떻게 중소기업이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고자 함

**Q3. 어떻게 데이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

A3.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거나 공시할 때 데이터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고품질인지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함. 데이터 품질 관리는 중소기업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관한 중소기업의 현재 위치를 더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이 공시 및 표준 개발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조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이 핀테크 데이터 플랫폼의 기존 지형과 유럽연합 택소노미 체계 정렬을 위한 데이터 사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정책 수립과 산업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PART III

방법론

▶ 본 보고서에서는 두 단계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 1단계로는 기존 데이터 플랫폼에서 웹 조사를 수행함
  - 온라인 웹 조사 뿐만 아니라 ESG, 탄소노미 정렬 및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관련 디지털 플랫폼을 찾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 'ESG 보고', '유럽연합 탄소노미', '중소기업' 등 키워드 웹 조사를 수행함
  - 유럽연합 탄소노미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가용성을 이해하기 위해 탄소노미와 관련한 ESG 데이터 양을 파악함
- 2단계에서는 대기업부터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까지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에 이르는 데이터 제공업체를 선정함
  - 1단계 웹 조사 단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업체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명시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본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Q1.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Q2. 중소기업, 투자자, 은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Q3. 어떻게 중소기업에서 높은 비용 및 행정 부담 없이 데이터를 공시할 수 있는가?  
 Q4. 데이터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의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플랫폼 업체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식을 설명하면서 다른 데이터 플랫폼의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설명하는 등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됨
  -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는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넘어서는 데이터 플랫폼 시연을 수행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데스크 조사를 기반으로 선별된 사례로 보완되었음

**| 표 2 | 디지털 플랫폼 사례 연구**

사례 연구 (Case studies)	인터뷰 (Interviews)	웹 조사 (Web research)
사례 연구 (Case studies)	○	○
무디스 (Moody's)		○
서스테이널리틱스 (Sustainalytics)		○
레피티니브 (Refinitiv)	○	○
그리나우매틱 (Greenaumatic)		○
에코바디스 (EcoVadis)	○	○
그리노미 (Greenomy)	○	○
ESG젠 스코어카드 (ESGgen Scorecard)	○	○
플러스벨류 ESG 플랫폼 (PlusValue's ESG Plat)	○	○
노우셰이프 (Knowshape)	○	○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택소노미 공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기존 과제와 기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최초의 질적 연구임
  - 그러나, 인터뷰 대상 기관이 충분치 않고 연구가 제한된 기간 내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예비 평가서로만 참고되어야 함
  - 추가적인 심층 및 정량적 분석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PART IV

사례연구

- ▶ 웹 조사에 이어 중소기업의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검토를 위해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기업을 선정함
- 무디스(Moody's), 서스테인리틱스(Sustainalytics), 레피니티브(Refinitiv)의 사례 연구는 포트폴리오 완전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검토함
- 그리나우매틱(Greenaumatic), 에코바디스(EcoVadis), 그리노미(Greenomy), ESG젠(ESGgen), 플러스밸류(PlusValue), 노우셰이프(Knowshape)의 사례 연구는 유럽연합 탄소노미 조정을 위한 회사 지원 모델에 초점을 맞춤

1 무디스

- ▶ 무디스는 직원 13,000명 이상을 보유한 경력 100년 이상의 세계 최대 리스프 평가 기업 중 하나로, 투자자를 위한 신용등급부터 데이터 분석, ESG 등급 평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무디스는 중소기업을 주로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무디스의 주요 고객은 투자자임
- 무디스는 중소기업과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ESG 점수를 모델링할 수 있는 예측 도구를 개발함
  - 해당 모델은 기존 방식으로 평가된 5,000개 기업의 ESG 데이터와 다양한 추가 거시경제, 금융 및 사회경제 변수를 기반으로 함
  - 해당 모델은 동일한 부문, 지역 및 규모 계층에 속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ESG 점수를 계산하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 포트폴리오 또는 거래처에 대한 ESG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기업, 투자자 및 은행을 포함한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음
  - 무디스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현재 1억 4,000만 개의 중소기업 및 개인 기업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무디스 오비스 플랫폼(Moody's Orbis Platform)을 통해 점수를 볼 수 있음
  - 또한, 무디스는 무디스 오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4억 개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보고서 및 특허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함
  - 오비스 데이터베이스는 투자자들이 기업 수준에서 ESG 점수 예측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의 ESG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 서스테이널리틱스

- ▶ 서스테이널리틱스는 11,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ESG 등급과 40,000개 이상의 규정 준수 등급을 수집함
  -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얻은 후 기업과 피드백을 주고받음
    - 서스테이널리틱스는 뉴스, 재무 데이터(외부 공급업체 제공), 전문 출판물 및 회사 보고서(ESG, 지속가능성, 연간 보고서 등)를 기반으로 함
  - 해당 기관은 완전한 데이터 세트가 필요한 포트폴리오 매니저, 투자자 및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가 비용은 데이터 제공 기업이 아니라 투자자와 금융 기관 등 데이터 소비자가 부담함
  - 서스테이널리틱스는 또한 기후 변화 억제 목표에 중점을 두고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맞춰 기업에서 데이터를 세분화해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업은 수익, 자본 비용 및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ESG 활동을 공시할 수 있으며, 평가 체계에서는 무해원칙(DNSH, Do No Significant Harm)과 최소 안전장치 등을 고려함
  - 기업에서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완함

## 3 레피티니브

- ▶ 레피티니브의 데이터베이스는 무디스와 서스테이널리틱스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며,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측정 방식을 자랑함
  -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범주의 ESG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랫폼 내 기업에서 데이터 가용성이 부족한 경우 데이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분야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ESG 점수가 차감되지만 다른 범주의 데이터를 통해 받은 점수를 통해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레피티니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ESG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음
    - 레피티니브는 2020년 기준 플랫폼 내 기업의 외부 감사 사용 비중이 25%로 증가했다고 밝힘

## 4 그리나우매틱

- ▶ 그리나우매틱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은행과 협력하는 중간 회계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이 대출 신청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시로, 에너지 소비 및 연료 소비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 데이터 등은 공급망 내의 요구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과 회계법인에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리나우매틱은 중소기업에서 특정 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나 유럽연합 탄소노미 준수 여부 등을 모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 따라서, 중소기업에 ESG 데이터 공개를 규제하는 법이 많지 않은 만큼 기업이 데이터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영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그리나우매틱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가격 책정과 관련된 총 수익의 비율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5 에코바디스

- ▶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등급, 인텔리전스 및 협업 성과 개선 도구를 제공함
  - 에코바디스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업스트림(Up Stream)과 다운스트림(Down Stream) 모두에서 기업의 전체 가치 사슬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에코바디스는 다양한 산업 유형, 위치 및 기업 규모에 대한 맞춤형 설문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점수표를 제공함
    - 에코바디스의 평가 플랫폼은 참여 기업의 실적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며, 플랫폼을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회사의 실적을 경쟁사와 비교할 수 있음
  - 에코바디스는 우수한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여준 기업에 메달을 수여하며, 해당 성과에는 지속가능한 조달 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 노동 및 인권이 포함됨
    - 에코바디스 평가 방법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최대 5년간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임
    - 여기에는 글로벌 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GRIDTM, The Global Regulatory Information Database)의 데이터가 포함되며 이해관계자 분석 및 직접 분석 데이터와 결합됨
  - 에코바디스는 기업 규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sup>4)</sup>

4) 직원 수가 25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기본 가입 비용이 349유로부터 시작하며,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중견기업의 경우 1년 서비스 이용 가격은 899-3,999유로임

- 에코바디스는 입력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사용된 방법론과 데이터 제공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급이 잘못 평가되었다고 판명될 경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함

## 6 그리노미

- ▶ 그리노미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2019년 설립됐으며, 현재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그리노미는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에도 제공하고자 목표를 세움
    -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택소노미 준수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업이 투자 또는 부채에 대한 관련 측정법을 확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유럽연합 택소노미 준수 심사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며, 기업은 그리노미의 API에서 원시 유럽연합 택소노미 데이터를 웹 조사할 수 있음
  - 2021년 12월 기준 딜로이트(Deloitte)를 통해 5,000개 기업이 해당 플랫폼에 가입했으며, 그리노미를 통한 유럽연합 택소노미 공시는 현재 하루밖에 걸리지 않음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작업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노미는 중소기업의 공시와 관련해 축소된 KPI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인증에 필요한 보증 비용을 제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그리노미는 중소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더라도 가시성, 벤치마킹, 자금 조달 접근성 향상 등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덧붙임
  -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택소노미 공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노미는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의 사업 모델은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 투자자와 은행에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기업이 투자자를 상대로 공시 자료를 제시할 때만 비용을 부담하면 됨
  - 그리노미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업의 데이터를 얻는 서스테이널리틱스나 ISS ESG와 같은 데이터 제공업체와 기업의 직접 보고에 초점을 맞춘 핀테크 솔루션의 차이를 더욱 강조함
    - 그리노미는 모든 기업이 더 나은 데이터 접근성을 통해 공시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그리노미의 특별한 점은 기업들이 기후 중립을 향한 2050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환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임
    - 이는 플랫폼이 단일 용도가 아니라 기업이 미래 목표와 관련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이 플랫폼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추천하고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녹색 투자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기업은 공시 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공급망을 재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음

## 7 ESG젠

### ▶ ESG젠은 유럽연합 탄소노미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제공하는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임

- ESG젠은 중소기업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인증된 감사를 제공하며, 과학 기반 측정 기준을 사용함
  - ESG젠은 ESG 보고를 통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 고객으로, 평가 대상 기업의 직원 수에 따라 다른 비용 체계를 적용하므로 소규모 기업이 ESG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하는 데 경제적인
- ESG젠의 솔루션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2022년 말까지 완전히 디지털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이용 기업은 매일 공시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음
  - 월별 고시 외에도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AE3000 공인 회계사의 연간 회계가 진행됨
- ESG젠의 창립자들은 중소기업의 문서(회계 시스템, 급여 또는 기타 문서)에 공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있지만 기업에서는 이를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함
  - ESG젠은 기업의 데이터 수집, 표준화 및 공시를 지원하며, ESG 활동의 가치와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공시 자체에 대한 측정 기준은 파리 협정, 유엔 개발 목표(UN development goals), 유럽연합 탄소노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적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함
  - 무기 또는 생물 다양성과 같은 특정 부문별 측면이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ESG젠의 점수표는 유럽연합 탄소노미와 71%밖에 일치하지 않음
  - ESG젠은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27개의 측정법만 활용하여 기존 ESG 공시를 간소화함
- 또한, 2021년에 ESG젠은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과 옥스퍼드 대학(The University of Oxford)가 주도한 연구에서 주요 ESG 프레임워크와 유럽연합 탄소노미의 정렬을 조사함
  - 해당 연구팀은 사용된 표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여주는 프레임워크의 정렬을 조사했으며, 더 큰 기업에서 정렬 비율이 60-80%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연구는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하지만 플랫폼과 유럽연합 탄소노미 체계의 일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
- ESG젠의 창립자들은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의 집계된 측정법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업 위치 또는 활동 부문을 기준으로 업계 평균을 계산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나타냄
  -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 수집은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의 정확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지속 불가능한 기업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아울러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개별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8 플러스밸류

- ▶ 플러스밸류는 ESG 플랫폼(ESG Plat)이라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및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함
  - 플러스밸류는 모든 부문에 걸쳐 수천 개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부문별 평균 데이터 및 기타 대리사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기업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함
  - 산업별 벤치마킹을 통해 기업별 성과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평가 모델에는 이중 중요성 실사(Double materiality due diligence)와 위험 평가 및 관리가 포함됨
    - 플러스밸류는 또한 기업 규모 및 위치와 같은 추가 요소를 통합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ESG 점수 및 순위와 같은 전체적인 기준을 설계할 계획임
  - ESG 플랫폼은 필수 측정법의 공통 기반과 여러 추가 측정법을 결합한 모듈식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됨
    - 이를 통해 ESG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에서도 톨을 완벽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음
    - ESG 플랫폼 프레임워크는 GRI, SASB, IIRC 및 IRIS+와 같은 지속가능성 표준과의 조정을 바탕으로 하며, 각 측정 방식에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체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을 비교함
    - 그런 다음 결과를 탐색하는 투자자에게 유럽연합 택소노미, UN의 SDG 또는 지표에 대한 선호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여러 선택지를 제시함
  - ESG 플랫폼은 또한 다중 요소 보증(Multi-factor assurance)의 통합으로 데이터 검증을 개선하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제한함
    - ESG 플랫폼은 웹 크롤링(Web-crawling)을 통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하고 뉴스, 보고서 및 소셜 미디어의 비정형 데이터를 평가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와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음
  - 플러스밸류는 전용 자체 평가 도구, 기업의 ERP 및 IoT 소스를 연결하는 API 액세스, 누락된 데이터를 추론하는 예측 알고리즘 등 계획을 통해 기업이 ESG 플랫폼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와 높은 데이터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개발 단계에서 ESG 플랫폼은 투자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플랫폼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덜할 것으로 보임
  - ESG 플랫폼은 공공재로서의 ESG 데이터 무료 배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음

## 9 노우쉐이프

- ▶ 노우쉐이프는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의 안드레아 지아코멜리(Andrea Giacomelli)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기반한 파생 솔루션으로, 유럽연합 택소노미 체계의 텍스트를 직접 기반으로 하며 유럽연합 택소노미 체계와 가장 일치도가 높은 솔루션 중 하나임
- 노우쉐이프는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된 데이터 플랫폼과 택소노미 정렬 도구를 제작함
  - 택소노미 정렬 모듈(Taxonomy alignment module)은 택소노미에 대한 경제적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경제 활동의 실제 정렬을 결정하며, 택소노미 정렬 검사를 위한 데이터는 기술 심사 기준에 의해 표시된 ESG 지표를 기반으로 수집됨
  - ESG 지속가능성 계획 모델 모듈(The ESG Sustainability Plan Model module)은 위임된 법률의 기술 심사 기준에서 임계값에 대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택소노미 정렬 계획(또는 제8조에 따른 자본 비용 계획)과 ESG 추가 계획을 작성함
  - 재무 모듈(Financial Module)은 재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성 계획이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보를 제시함
- 택소노미 정렬 도구는 기술 심사 기준을 기반으로 하며 자본 비용, 운영 비용 및 회전율과 관련한 KPI를 포함함
- 아울러 데이터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기업이 직접 내부 문서를 모두 준비하여 업로드
2. 기술 컨설턴트, 기획자, 감사 그룹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팀 조직
3. 은행에서 내부 신용 프로세스 및 보고(GAR)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화된 형식으로 택소노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업이 문서를 업로드
4. 은행이 선정한 엔지니어, 기획자, 감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팀이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파일링하고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

- 택소노미 정렬 도구는 확장 가능한 웹 기반 시장 솔루션이며, 10,000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함
- 노우쉐이프는 주요 기업 ERP 소프트웨어, 특히 SAP와의 통합을 위해 연구개발 중에 있음
- ▶ 노우쉐이프의 솔루션은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노우쉐이프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배출물 및 기타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함
  - 이러한 이유로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기업의 부담액이 5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해당 시나리오는 기업에서 탄소노미 정렬을 위해 데이터를 처음부터 수집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를 한 적이 없는 시나리오임
- 이 경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며, 정확하고 상세한 데이터 품질이 보장됨
- 노우셰이프는 유럽연합 탄소노미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시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지원을 제공함
  - 그러나 유럽연합 탄소노미 체계와의 근접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보다 복잡할 수 있음



## 연구 결과

- ▶ 온라인 조사 결과, 기존 솔루션의 다양성,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도, 시장에 출시된 두 가지 유형의 플랫폼, 중소기업을 위한 솔루션 부족 등 네 가지 주요 사항이 확인됨

### 1-1 다양한 솔루션

- ▶ 초기 온라인 조사 결과, 현재 시장에 다양한 솔루션이 있어 탄소노미 정렬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함
  - 데이터 플랫폼 공급 업체의 대부분은 서로 다른 입력 데이터와 측정법 및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기업에서 유리한 데이터 및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함
    - 아울러 다양한 솔루션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플랫폼 간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입력 데이터의 통합을 들 수 있음
    -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축될 예정인 유럽 단일 데이터 액세스 포인트(ESAP, The European Single Data Access Point)를 통해 가능함
    - 유럽 단일 데이터 액세스 포인트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지점에서 재무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유럽 단일 데이터 액세스 포인트는 무료 플랫폼으로 제공되어 비정부기구(NGO) 및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의 접근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유럽 단일 데이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데이터 수집 기관이 사용하는 기술 표준도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은 데이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자동 검증을 수행할 방침임

### 1-2 중소기업을 위한 솔루션 부족

- ▶ 관련 솔루션은 많이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솔루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에서 데이터를 공시할 동기가 매우 적은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1-3 시장에 출시된 두 가지 유형의 플랫폼

- ▶ 투자자 중심의 플랫폼은 무디스, 블룸버그(Bloomberg), 레피니티브 및 서스테인리틱스와 같이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데이터 완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위치, 규모 및 산업 부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플랫폼임
  - 이를 통해 부문별 평균을 생성할 수 있지만 개별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임
    - 특히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의 경우 세부사항과 세분화보다는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데이터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AI와 자동 웹 조사는 웹사이트, 회사 보고서 또는 CRS, ESG 보고서와 같이 회사가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회사의 ESG 데이터를 얻는 데 사용됨
    - 이를 통해 많은 경우 회귀 모델이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업의 누락된 데이터에 대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음
- ▶ 기업 중심의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며 택소노미 체계 조정 및 ESG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고 공개하는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함
  - 기업 중심의 플랫폼은 데이터의 세분화에 집중하고 진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데이터 품질 및 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 서비스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수집하기도 함
    - 이러한 세분화 작업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통상 제한된 수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짐

[그림 1] 시장에 출시된 두 가지 유형의 플랫폼



- ▶ 이 두 가지 유형의 플랫폼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상적으로는 두 번째 유형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유럽 단일 데이터 액세스 포인트는 미래에 이 두 플랫폼 유형의 연결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
  - 그리노미 등 일부 플랫폼은 현재 세부 기업 데이터 지원을 투자자와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1-4 중소기업을 위한 솔루션 부족

- ▶ 대기업과 상장기업을 위한 ESG 공시 솔루션은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유럽연합 탄소노미를 위한 중소기업 솔루션이 부족함
  - 핀테크 스타트업 및 연구 파생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 솔루션을 공개하고 있어 본 연구팀은 그리노미, ESG젠, 디지털 임팩트 플랫폼(Digital Impact Platform) 및 노우쉐이프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 온라인 웹 조사에 이어 유럽연합 탄소노미 체계 정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제공업체와 핀테크 스타트업 및 학술 솔루션을 포함한 6번의 인터뷰가 수행됨
  - 반구조적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데이터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공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잠재적 비용과 이점, 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 탄소노미의 맥락에서 중소기업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인식된 장벽과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 중 일부는 인터뷰한 기업이 제공한 관점을 기반으로 도출됨
    - 인터뷰에 응한 기업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편향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정량적 평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1 데이터 가용성, 수집 및 품질

- ▶ 인터뷰 결과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투자자 중심의 플랫폼의 경우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상장기업에도 제공되는 일부 지표에 대한 데이터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이는 누락된 정보가 산재하기 때문으로, ESG 공시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회사 중심의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 수집 방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맞춘 지원을 제공함
    - 플랫폼은 회사의 디지털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와 엔지니어의 현장 지원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공시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함

-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공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중소기업에서 공시하지 않은 데이터를 보다 심층적인 환경 연구(수명 주기 평가, 할당 모델 및 기후 위험,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해서 수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 장부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충분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존재함
  - 어떠한 데이터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확실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화된 표준 및 공시 기준의 도입을 통해 데이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음
- ▶ 인터뷰 응답자들은 특히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해 데이터 품질보다 데이터 완전성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강조함
  -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세트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자주 사용되는데 웹 조사 알고리즘이 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 데이터 수집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됨
    - 또한, 데이터 세트를 완성하기 위해 산업 평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산업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기업의 경우 공시를 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음
- ▶ 일부 학술 논문에서는 표준화 부족과 감사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감사가 부족하면 그린워싱의 위험이 증대하고, 기업이 공시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데이터만 취사선택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런 경우 ESG 데이터 공시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에 관련해 더 높은 투명성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 중심의 플랫폼의 경우 사내 또는 공인 전문가를 통해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데이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지만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데이터 플랫폼은 잠재적인 데이터 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이중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력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 등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2 중소기업의 경제성 및 혜택

- ▶ 일부 인터뷰 응답자들은 중소기업에서 ESG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중소기업에서 ESG 데이터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상담 지원 서비스나 감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모됨
    -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솔루션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종류 및 측정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지표를 제시해 예상 비용 추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데이터 공시 부담을 안기지 않고 은행과 같은 다른 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도 제시됨
  -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일부에서 중소기업 자체보다는 중소기업 데이터에 더 관심이 있는 투자자와 은행이 이미 발견됨
  - 이러한 모델을 차용하면 중소기업이 플랫폼에 가입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장벽을 허물어 포트폴리오의 데이터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에게 벤치마킹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더 많은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데이터 공시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모니터링 및 구현에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일부 핀테크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성과 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향후 목표 실적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목표를 기준으로 벤치마킹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은 ESG 점수를 마케팅 및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 이용해 공시로 인한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중소기업에서 ESG 데이터를 공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투자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이 중소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임
- ▶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미 여럿 존재함
  -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데이터에 관심 있는 주체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데이터 플랫폼에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중소기업에서 가치 창출과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다른 기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드높이는 방안이 있음

## PART VI

## 결론 및 시사점

- ▶ 본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웹 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 가치 창출, 입력 데이터 및 품질 관리, 목표 지향 등 중소기업의 데이터 공시를 위한 정책적 인사이트를 도출함
- 중소기업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ESG 데이터 공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접근에 부담이 없어야 함
  - 중소기업을 위한 공시 자금 조달의 한 가지 방법으로 투자자나 은행이 공시 과정에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 플랫폼 제공자가 잠재적으로 분석을 위해 확실한 가격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됨
  -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는 데이터에 대한 무료 감사 뿐만 아니라 무료 평가 및 지원도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의 제3자 평가는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유럽연합 택소노미 정렬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면 공시 자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지나쳐서는 안됨
  - 따라서 회사 직원 수를 기반으로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음
- ESG 데이터 공시는 단순한 회계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봐야함
  - 정책 입안자와 플랫폼 제공자의 소통은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은 특히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인사이트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중소기업은 이로 인해 내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거나 정보에 입각한 투자 선택을 하거나, 환경 및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공시를 통해 경쟁업체를 벤치마킹할 수 있으므로 경쟁업체에 비해 실적을 더 잘 모니터링하고 약점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공시를 통해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유치하여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 표준화는 시스템에 투입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함
  - 입력 데이터의 경우 유럽 단일 액세스 포인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비정부기구 및 기타 행위자들이 ESG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통제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율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인증되고 표준화된 제어 및 감사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함
  - 기업 차원에서는 인증된 외부 감사를 활용하고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 데이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음
- 또한, 규제는 시장이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완전한 데이터 세트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더

높은 세분성, 완전성 및 데이터 품질에 초점을 맞춰야함

- 투자자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과 기업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결을 통해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하는 현재의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음
- 이러한 알고리즘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주어진 경제 부문, 시장 부문 또는 국가 내의 평균 성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유용함
- 이는 개별 기업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집계 수준에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함

- 플랫폼 간 결과의 비교를 위해 정책 입안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일련의 지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탄소노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 이는 수집된 입력 데이터와 플랫폼 및 데이터 제공자 측면에서 평가에 사용된 지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병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공시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 플랫폼은 기업이 탄소 중립성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 데이터 플랫폼은 기업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파리 협정 또는 그린딜의 목표)를 제안하고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 우리나라도 최근 ESG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게시하였으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데이터 공시가 본격화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게시했으며, 향후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K-ESG 경영지원 플랫폼 등 다른 플랫폼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sup>5)</sup>

- ESG 정보 플랫폼에서는 기업 ESG 조회, 기업 ESG 등급, ESG 보고서 등 관련 데이터 및 보고서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규제동향, 채권 발행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

- ESG 정보 플랫폼은 ESG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경제·사회 내 ESG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ESG 데이터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명확한 기준 확립과 민·관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데이터 공시를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 가능함

- 중소기업에서는 ESG 경영 공시를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규격의 시스템 인증 심사비가 20인 미만의 경우 최소 200만 원에 달하고,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1,000만 원이 소요되어 많은 부담을 느낌<sup>6)</sup>

5) 금융위원회,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 12월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2.20.

6) 전기신문, “누구를 위한 ESG인가...속도 조절·보완 필요”, 2022.03.15.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한다고 발표함<sup>7)</sup>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ESG 공시 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에 설립되는 위원회로, 국내 기업의 ESG 공시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우 2021년 기준 K-ESG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며 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 중임<sup>8)</sup>
  - K-ESG 얼라이언스는 대기업에 집중된 ESG 데이터 공시에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구임
  - 해당 기구는 우수 ESG 공시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ESG 협력 방안 및 ESG 주요 이슈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2월 기준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을 개최함<sup>9)</sup>
  -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월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 공통으로 적용되는 ESG 공시, 금융 등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신속히 산업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K-ESG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 활용과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본적인 ESG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발표함

7)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 2022.12.15.

8) ZDNET, “ESG 공시 의무화 D-3년...재계 "채찍보단 당근 필요", 2022.12.19.

9)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개최 - 공급망 ESG 협력 방안 및 ESG 주요 이슈 대응전략 논의”, 2022.02.10.

## 참 고 문 헌

- Margot Möslinger, Alessandro Fazio, Olivier Eulaerts, “Data Platform support to SMEs for ESG reporting and EU taxonomy implementation”, Joint Research Centre, 2022
-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01.14.
- 경기일보, “녹색경영 열풍 거센데… 힘 못쓰는 中企”, 2022.10.10.
- 금융위원회,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 12월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2.20.
- 전기신문, “누구를 위한 ESG인가…속도 조절·보완 필요”, 2022.03.15.
-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구성운영 -”, 2022.12.15.
- ZDNET, “ESG 공시 의무화 D-3년...재계 "채찍보단 당근 필요", 2022.12.19.
-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개최 - 공급망 ESG 협력 방안 및 ESG 주요 이슈 대응전략 논의”, 2022.02.10.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 발행처 **K 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8층

| 기획 및 편집 데이터산업본부 산업기획팀

| 문의처 Tel: 02-3708-5363, 5364

**ISSUE BRIEF**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무단전재를 금하여, 가공/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